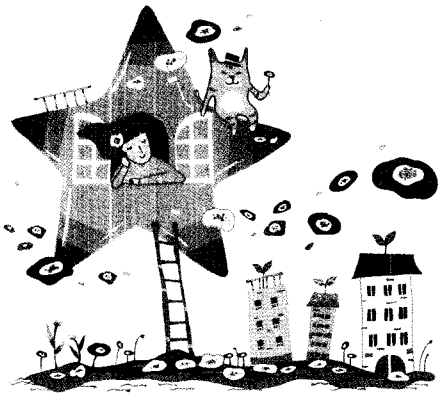
특집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대학

남궁문 | 원광대학교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2권역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한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광역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사업에 전국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사업기획 배경과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 등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의 향후 교육방향과 더불어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의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인재양성센터 기획배경

기업이 대학에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30개 그룹 대표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재상 역량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창의성 21개사(70.0%), 도전정신 20개사(66.7%), 주인의식 15개사(50.0%), 전문성 14개사(46.7%), 글로벌역량 13개사(43.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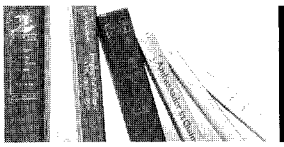


표 1. 30개 그룹 대표기업 인재상 역량

역 량	빈도수	비율(%)	응답기업 (30개사)
창 의 성	21	70.0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SK 텔레콤, LG 전자, 대한주택공사, 롯데쇼핑,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한국토지공사, GS 칼텍스, 현대중공업, KT, 대우건설, 대한항공, (주)한화, 두산중공업,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STX 팬오션, 신세계, CJ(주), LS 전선, 동부화재, 대림산업,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KCC, GM 대우
도 전 정 신	20	66.7	
주 인 의 식	15	50.0	
전 문 성	14	46.7	
글로벌역량	13	43.3	
팀 워 크	12	40.0	
직 업 윤 리	9	30.0	

* 자료 : 대한상의. 2008. 6

이와 같이, 국내외 대표 그룹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의적 핵심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심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능력 및 직업의식, 다문화 이해능력 등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업 기초능력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괴리된 대학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창의적 핵심인재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양성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대학과 기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식 창출과 함께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경쟁력이 미래의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국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질적인 관점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학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학 진학률은 '04년 기준 81.3%로 미국 63.3%, 일본 49.1%보다 월등히 높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39.5%로 IMD 조사대상 60개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형적인 특성화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대학 특성화를 이루기 위한 선택과 집중된 투자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IMD(2008)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 영역에서 55개국 가운데 5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설문)' 항목의 경우 13위('07년) → 41위('08년)로 하락하여 대학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일류 대학 따라잡기 전략과 대학재정 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특성화 전략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인재와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 간의 양적 · 질적 불일치(mismatch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미래를 대비한 대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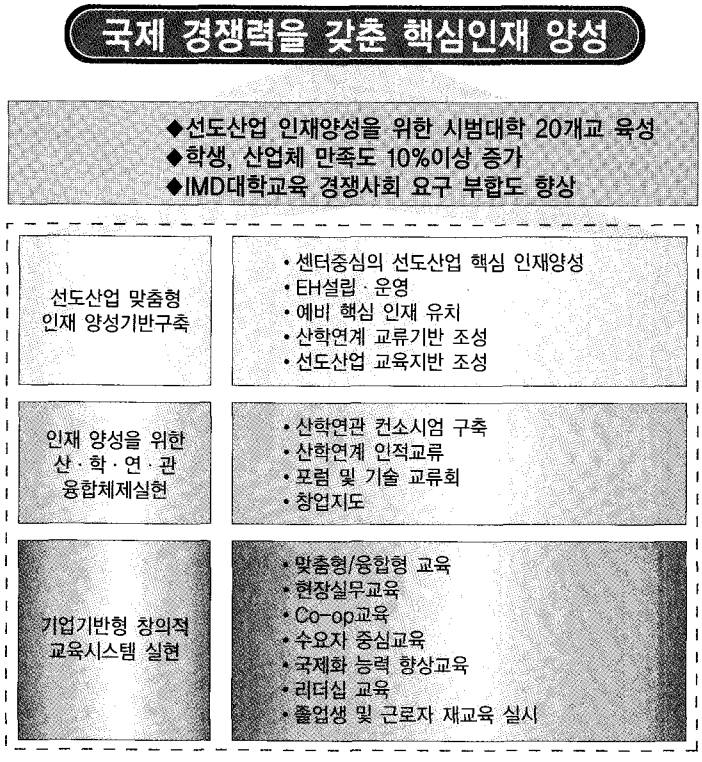
과제로는 첫째,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특성화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둘째, 창의적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셋째, 대학과 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쌍방향적 산학협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사업 설계시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체계가 공고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되었다.

2.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의 비전 및 목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는 광역경제권별로 설정된 선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각 광역경제권별로 설정된 중심사업을 기반으로 한 Hub대학을 선정·육성하는 센터로 설계되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기본방향은

- 광역적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방의 글로벌 경쟁거점 형성
- 지역, 기능, 정책, 구성주체, H/W와 S/W의 통합적 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자체간 연계 및 협력 모델 창출
- 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우선 발굴
- 광역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간의 상생적 동반발전 추구
- 광역권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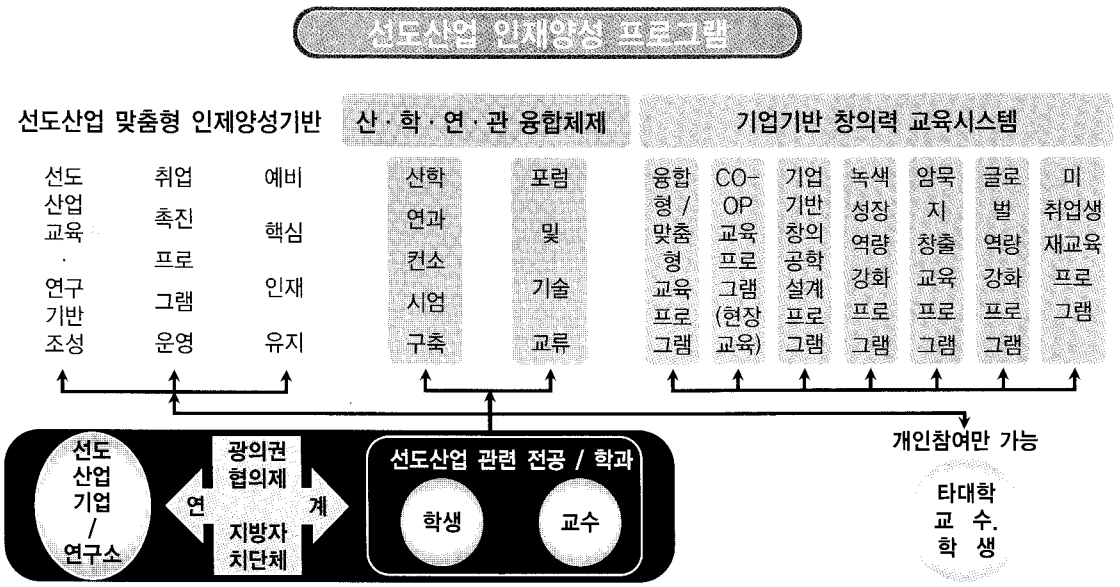
등과 같다. 이러한 선도산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재상과 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3.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가 역할을 다하고 목표로 하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인재양성센터의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반이 되는 부분과 성과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외에 센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센터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센터의 프로그램 중 선도산업 교육기반 조성, 미취업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이고, 융합형/맞춤형 교육, Co-op 교육, 기업 기반 Capstone Design, 녹색성장 역량 강화, 암묵지(暗默知) 창출 교육(Know-how Learning Program),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 등은 선택으로 하여 선도산업에 따른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관계 증진을 통해 산업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하였고 선도산업과 관련된 교수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선도산업 분야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부분 참여를 허용한 점이 특징이다.



4.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려된 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1) 실험실의 집적화, 2)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활성화, 3) 산학연계형 공동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의 실험실들이 실험실별 특성을 지니면서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에서는 선도산업과 관련된 실험실의 집적화를 통해서 양성되는 학생들이 산업체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선도산업 분야별 실험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즉, 실험실이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구입되는 기자재로 집적화된 실험실에는 산업체 인력과 대학 인력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이요,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산학협력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산업체와의 연계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와 대학의 생리를 상호 파악하여 인재양성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제도를 반영하였다. 즉,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학생들의 산업체 기반 교육, 인턴, 공동연구, Co-op제도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와의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도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집중화된 센터이니 만큼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부분이 고려되었는데 본 사업의 경우 산업체와의 밀착형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연구수행에 있어서는 산업체와 협동연구를 필수로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대학교수와 산업체의 연구인력이 공동 지도교수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실험과 연구 성과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공동연구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연구노트를 기록 보관함으로써 산업체와 실질적인 연구 수행과 함께 향후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한 win-win시스템이 강화되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다.

5. 마무리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센터에 20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1차년도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사업의 운영과 성과관리 등이 기존 사업들과 다소 차별화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업 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험실의 집적화와 더불어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조직, 규정 등에 대한 부분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 인력이 많은 관계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의 구축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본 사업에 선정된 20개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광역권별 선도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립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필 / 자 / 소 / 개

남궁문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그리고 일본 Hiroshima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NURI사업컨설팅위원, 교육인적자원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정책연구과제 책임연구원, 대한교통학회 이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원광대학교 기획조정처장, 미국 UIC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도시공학부교수로 재직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Extracting features of sidewalk space using the rough sets approach」 등이 있으며, 「건설정보 및 관리」등 다수가 있다.